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등록번호:라3459 TEL.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568-5595~6
FAX. 568-6653

을漁港工事 예정工程 앞당겨

5月23日 현재 48個港 51件 착공

移越공사도 順調롭게 進陞

올해 수산청 어항시설공사가 활발히 추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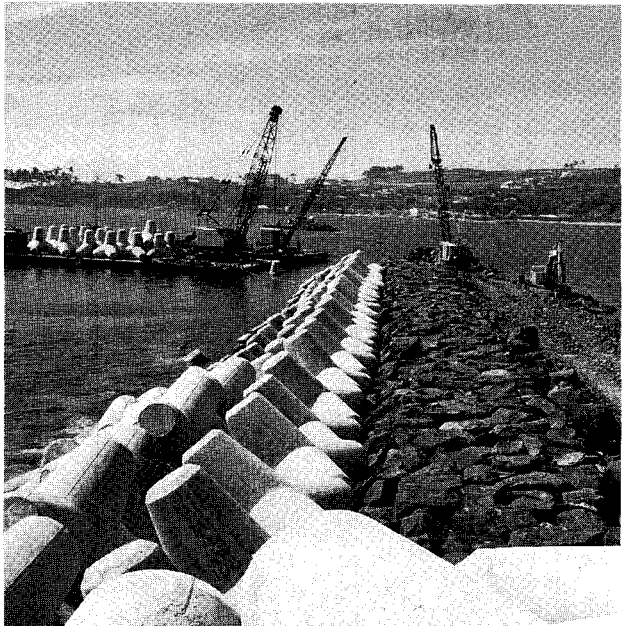
수산청에 따르면 5월 23일 현재 올해 총 56개항 59건 중 48개항 51건이 착공되어 예정공정을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해어항사무소는 올해 투자대상 25개항 26건 중 내발·여서·초도·득압 등 24개항 25건을 착공했고 외포항은 계약추진 중에 있으며, 서해어항사무소는 12개항 14건 중 수품·말도·격포·모항항 등 10개항 12건을 착공했다. 격포항 준설은 본공사 투기장 완공후에 착공할 예정이며, 전장포항은 95이월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 이달 안으로 96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동해어항사무소는 19개항 중 수산·안목·축산·저동

·현포항 등 14개항을 착공했고, 사동항은 계약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 지정한 감포(북방파제보강 1식, 물양

장축조 60m)·죽변(방파제보강 1식, 물양장축조 1백m)·강구(방파제보강 1식, 물양장축조 1백30m)·입원항(준설 1식)은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95이월공사는 10



개항 중 물건항과 오천항이 준공되었고 나머지 8개항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면에 계약현황 게재>

水産行政 모니터 316명 委嘱 수산청

수산청은 최근 21세기 수산행정 발전 모니터 요원 316명을 위촉, 이들로부터 총 70개 단체에서 풍부한 경험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자를 분야별로 선발, 3백16명의 모니터 요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모니터 요원은 수산청에 따르면 어업인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수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기에 파악, 대처하기 위해 어촌지도소, 산하 기관단체, 어업인 및 학계 등 총 70개 단체에서 풍부한 경험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자를 분야별로 선발, 3백16명의 모니터 요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모니터 요원은 수산청에 따르면 어업인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수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기에 파악, 대

100의 옛말은 은이다. 100, 즉 은은 완전을 의미한다. 우리 말 앞에 붙는 「은」, 예를 들면 은갓, 은누리, 은종일 등등의 은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왕이 아니면 99칸짜리 이상 집을 가질 수 없었다. 100은 완전한 자, 즉 왕만이 가질 수 있음은 숫자 이상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100은 절대 숫자인 것이다. 1988년 1월에 창간된 어항소식이 지난 4

창간 당시만 해도 어항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설사 찾았다하더라도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활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항소식은 바로 이것을 발굴하고 한곳에 모아 체계화 했다. 처음엔 답답하고 한심하기도 했으나 회를 거듭할 수록 좋은 자료가 모이고, 모인 자료는 곧바로 어항인들이 직접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누군가 해야 했을 일, 그러나 아무도 하

漁港文化 창출 100개월

「漁港消息」101號 어항 能 地 坪 矣

월호로 지령 100호를 넘어서었다. 쉽게 계산해서 어항소식이 창간된지 1백개월이 됐다는 뜻이다.

사실 여타 일반 잡지도 선풍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 지령 100호이다. 그럼에도 창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호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어항소식이 발간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은」, 다시 말해 완전의 경지에 들어섰다고나 할까.

물론 돌이켜 보면 우여곡절도 참으로 많았고, 역경도 많았다. 그 많은 어려움을 딛고 오늘에 이른 것은 오로지 사명감, 이 낱말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어항인 모두가 체험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간 당시만 해도 어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항과 관련한 그 어떤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어항소식이 한 호도 거르지 않고 발간돼 왔음은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자부한다.

어항소식 지령 100호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어항사의 정리이다. 역사성이 없는 단체나 국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솔직히 그동안 한국의 어항사는 세월속에 묻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 뿐만아니라 그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어쨌거나 1988년 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어항사의 도약기는 어항소식으로 인하여 그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게 되었다. 그 이전의 역사는 협회의 한국어항사 발간으로 보완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한국어항사와 어항인의 정체성이 확립된 것이다. 둘째, 어항자료의 발굴 체계화이다.

지 않았던 바로 그 일을 어항소식이 해냄으로써 어항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한 것이다.

셋째, 어항에 대한 인식과 어항인의 위상 제고이다.

사실 어항소식 창간 당시만 해도 어항의 중요성이라든지, 어항인에 대한 인식이 별반 확립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어항소식이 발간되면서 어항과 관련된 정부시책 및 국내외 어항정보, 자료 등 폭넓은 내용을 담아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와 전국 어항관련 기관 단체, 어항업체, 학계, 연구계에 널리 배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항에 대해 좀더 깊은 이해와 인식의 한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직도 어항소식이 할 일은 너무도 많다. 우선 지속적인 면서도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어항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항관련 내용의 기록 유지에 급급했던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정리하고, 어항업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더욱 노력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번 지령 101호를 기점으로 가로쓰기로 편집체제를 바꾸는 이유는 단순히 문장의 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변신하는 시대의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모든 어항인들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령 100호를 맞은 어항소식이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어항인들의 배전의 협조를 바라마지 않는다.

漁港 · 어항인 위치 제고에 앞장
가로쓰기로 活 力 이 있고 快 適 한 漁 港 어촌 先 導
가 로 쓰 기 로 閱 讀 率 높 여

菊洞港 등 8個港 整備 계획 調査

어민 便宜 · 施設 관리도 모하려

수산청은 올해 국동항을 비롯 8개항에 대한 정비계획 조사, 환경영향 평가, 수치모델 실험 등 조사사업을 실시, 어항개발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이용어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지난 4월부터 조사사업에 착수,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

수산청에 따르면 시설물 완공후 장기간의 경과로 항세 등의 여건변화 등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국동·남해항 등에 대한 정비계획 조사를 실시하고, 파랑등으로 인한 연안표사 이동으로 발생하는 항내 매물 및 해안 침식현상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사전진·수산항에 대해서는 수치모델 실험을 착수했다.

수산청은 또 환경영향평가 법령에 따라 어항시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

하기 위해 모항 안목항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착수했다.

홍도 등 63곳 落島港 旅客船 선착장 건설

홍도 등 전국 63개 낙도항에 오는 2006년까지 여객선 선착장이 개발된다.

해운항만청이 마련한 낙도 여객선 선착장 개발계획에 따르면 총 1천5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홍도를 비롯, 추자·대청 등 전국 63개 낙도항에 여객선 선착장을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중 홍도를 비롯 추자·여청도·말도 등 7개항의 경우 해항청과 수산청이 개발을 담당하고 나머지 56개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 52개항에 선착장 시설이 집중 개발되고 전북과 경남에 각 3개항, 제주 2개항, 인천, 경기도, 충남지역에 각각 1개항

씩이다.

주요 항별 선착장 개발계획을 보면 전남 신안군 소재 홍도항의 경우 7백21억원을 들여 북측 선착장 1백20m와 외곽시설(3백m), 접안시설(2백75m)과 배후지 매립(8만㎡), 준설(48만㎡)사업 등을 시행, 늘어나는 여객수요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제주지역 추자항에 3백39억원이 투입돼 방파제 1천50m와 항내 호안(5백50m), 안벽(1백40m) 등이 들어서고 전남 신안군 만재항에도 올년부터 1백63억원이 투입돼 방파제 2백50m와 선착장시설 1백50m가 개발될 예정이다.

한편 해항청은 이같은 낙도지역 선착장 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2단계로 구분, 우선 1단계로 9백82억원을 들여 홍도 및 추자 등 27개항을 오는 2001년까지 개발하고 나머지 36개항에는 5백35억원을 투입해 2단계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일본 어항관련 사업별 예산개요

2千2百11億엔 규모 前年比1%증가

1. 어항관련 예산의 개요
1996년도 일본의 어항관련 예산은 총 2천2백11억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1.0%증가에 그쳤으나 어항의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신어항어촌 정비 비전에 의하여 어항어촌권의 거점 어항을 중심으로 정비의 중점화를 도모함으로써 꾸준한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어촌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배수 시설 등의 환경정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의 3차년도로서 계속해서 ①주변수역의 고도 이용 ②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수산물의 안정 공급 ③교류의 어항공간 창출 ④쾌적하고 활력있는 어항어촌의 형성 ⑤아름다운 해변 환경의 조성과 보전을 기본 목표로 하여 어항어촌의 정비를 할 계획이다.

(1) 신해양 질서에 대응한 어항어촌진급정비 대책
새로운 어항어촌정비 비전에 의하여 연안역이나 어장 관리상에서 일체적인 역할을 지니는 지역을 어항어촌권으로 정착하고, 그 기반이 되는 어항의 긴급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어항 시설 및 생활환경시설의 일체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 방재 거점 어항정비 사업
지진 발생시 긴급 수송기지가 되는 어항을 방재 거점 어항으로 하고 항만과의 기능분담에도 배려하여 전국적인 배치계획에 따라 내진버스, 내진성을 강화한 수송시설 등으로 이루어지는 어항 시설의 정비를 도모한다.

(3) 자연환경 보전 어항의 정비
어항환경 정비사업을 확충하고 어항구역의 수역에서 오염, 흙탕이 등의 제거, 간사 등의 정비를 실시하여 수역환경의 보전 대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어항어촌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공간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사업별 예산개요
(1) 수축사업
어항정비 장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으로 어항정비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며 어항시설의 대규모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제9차 어항정비계획에서는 계획기간내의 총사업비가 15억엔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고 국회에서 승인된 4백80개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비 1천2백25억엔이 계상되어 있다.

(2) 개수사업
수축사업을 보충하는 예산 보조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

으로 수산업의 정세변화에 적응하여 탄력적으로 어항시설 정비를 하는 것이다. 제9차 어항정비 장기계획에서는 계획기간내의 총 사업비가 3억엔 이상 15억엔 이하로 대략 7백20개항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국비 4백76억엔이 계상되어 있다.

(3) 국부개량사업
어항시설의 유지보강, 국부적인 개량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어항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는 예산보조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 지난 '87년부터 시작된 어항내에서의 유어선 등과 어선 이용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어항이용 조정사업(피서리너 정비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으로 올해는 총 사업비가 현의 사업비 1억엔(시·정·촌사

아름다운 海邊環境 조성 水産物의 安定的 供給 周邊水域 高도이용 주력

업으로 2천만엔) 이상 3억엔 이하의 것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로 1백39억엔이 계상되어 있다.

(4) 어항어촌 환경정비 사업
① 어항공해 방지 대책 사업
어항구역내의 수질개선 또는 오락을 방지하는 등의 사업으로 공해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니, 기타 공해의 원인이 되는 퇴적물을 제거하는 오니준설사업 또는 어항의 박지 등에 있어서 부유물, 쓰레기 등을 모아 폐기하는데 필요한 청소선 정비사업 등이 있다.

올해는 오니준설사업으로 국비 6천만엔이 계상되어 있다.
② 어항부락 환경정비 사업
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진 어업부락의 생활환경

을 개선하여 생산과 생활이 균형이 되도록 어촌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어업부락 도로, 수산음압 용수시설, 어업부락 배수시설, 녹지 광장 시설, 방재안전시설, 토지이용고도화 재편정비 등이 있다.

올해는 국비 1백14억엔이 계상되어 있다.

③ 어항환경 정비사업
어항의 경관유지, 미화를 도모하여 쾌적하고 운택한 어항환경을 형성하는 한편 작업효율과 안전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어항시설 용지에서 어항의 환경향상에 필요한 시설정비 또한 이들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용지정비, 친수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안전정보 전달시설 및 수역환경 보전대책의 정비를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전체계획 사업비의 하한은 2천만엔 이상으로 했다.

올해는 국비 40억엔이 계상되어 있다.

④ 어항어촌 종합정비사업
도서벽지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입지한 어촌을 대상으로 지역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어항시설의 정비 및 어촌의 생활환경 시설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어항의 기본 시설과 기능시설(수송시설 어항시설용지)의 어항시설정비와 어항배후지역의 도로, 수산음압 용수시설, 어업부락 배수시설 등의 생활환경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다.

올해는 국비 54억엔이 계상되어 있다.

(5) 어항어촌 조사비
어항어촌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사 사업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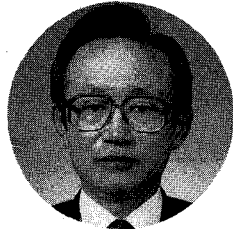
올해는 국비 1억4천2백만엔이 계상되어 있다.

(6) 어항어촌 조사비 보조
생산 생활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의 책정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올해는 국비 5천8백만엔이 계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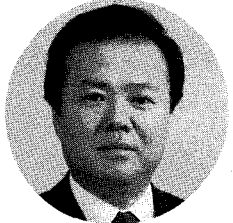
(7) 어항관련 도로 정비 사업
농림어업용 휘발유 세재원 대체 조치의 일환으로 어획물의 유통 및 어업용 자재의 수송합리화에 의하여 어업기능의 충실과 어업생산의 근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어촌환경개선을 도모하기로 하고, 어항과 어항, 어항과 주요도로, 어항과 어장을 연결하는 도로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46억엔이 계상되어 있다.



田允喆 수산청장

▲전윤철 수산청장은 5월 16일 수산청 회의실에서 부산 수대 수산과학대학장 등 수산 산·학 협동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수산 산·학 협동심의회를 주재, 17일에는 경북지역의 수산시설을 시찰하고 포항 하정2리 어촌계에서 관련 기관 단체장 및 어촌계장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EEZ 선포와 관련 한·중, 한·일 어업회담 결과 및 수산시책을 설명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18일에는 부산수대에서 개최된 수산청장배 제22회 전국수산인 직장대항 테니스대회에서 시구를 하고 선수들을 격려.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5월 7일 하이아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신한국당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 16일에는 수산청 산하단체장 회의에 참석, 이어 재정경제원을 방문하고 현안 업무협조를 당부, 21일에는 수협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산정책 포럼에 참석, 23일에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농수축산신문 창간15주년 기념리셉션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5월 8일 제1회 수협효행상 시상식을 개최, 17일에는 전국법인어촌계장 21명을 초청 간담회를 주재, 21일에는 새어민상 시상식을 갖고 이어 수산정책 포럼에 참석.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5월 15일 회의실에서 협회 기술개발팀이 개발한 생인력화 근해안강망 어선 선미식 어선설계에 대하여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

▲배환갑 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 8일 경남은행 통영북신동지점 개점식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 17일 광주 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18일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주관 제12회 청소년선도서화 백일장에 참석, 22일에는 국제인권보호연맹이 주관한 산업시찰 및 현지답사차 영광원자력발전소를 시찰.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5월 15일 광주시 체육회가 주관한 종목별 경기단체 및 기관 기업체간 후원결연식에 참석, 18일에는 광

주지방검찰청 주관 제12회 청소년선도 서화 백일장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 7일 하이아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신한국당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 21일에는 신한국당 국제자문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23일에는 조선훈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세미나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 8일 광주 전남 기관장 정기조찬회에 참석, 10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관 기관장 간담회에 참석, 23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협의회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5월 15일 광주시 체육회가 주관한 종목별 경기단체 및 기관 기업체간 후원 결연식에 참석.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5월 4일 제주개발공사 이사회에 참석, 16일에는 제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제주협회 회의에 참석.

승진

▲정창세 한국원양어업협회 전무이사는 5월 10일 이사회에서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주소변경

▲박광훈씨(전 수산청장)는 최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목련단지 우성아파트 706동 1302호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0343) 86-0910.

▲박임호씨(주식회사연우기획 사장)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7번지 동신아파트 301동 604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0342) 704-3584. 사무실 전화번호 : (02) 3442-7281.

회측

▲김희상씨(본회 파고계유지관리사업본부)는 오는 6월 8일(토요일) 12시에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회측을 밝힌다.

의비남부

- 단체
 -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재철)
 - ▲동화건설주식회사(사장 김종배)
 - ▲조흥공영주식회사(사장 박규언)
 - ▲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사장 이희범)
 - ▲주식회사유일종합기술단(사장 이희운)
 - ▲주식회사세광종합기술단(사장 최익환)
 - ▲주식회사범아엔지니어링(회장 안철호)
 - ▲주식회사케이에스에스엔지니어링(사장 김영수)
 -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조

- 합장 장근호)
 -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성식)
 - ▲냉동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영택)

- 개인
 - ▲박광훈씨(전 수산청장)
 - ▲신언한씨(강남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이기홍씨(삼성전자주식회사 이사)
 - ▲김중근씨(김중근세무회계사무소 소장)
 - ▲박대현씨(한국국방연구원 안보연구위원)
 - ▲공종덕씨(주식회사삼아항업 사장)
 - ▲황권주씨(이우실업주식회사 회장)
 - ▲이동섭씨(청소년지도육성회 사무총장)
 - ▲박규을씨(삼정기업주식회사 회장)
 - ▲송형준씨(외환은행 호주 사장)
 - ▲이왕렬씨(국제전략경영연구원 원장)
 - ▲김종석씨(신신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이기인씨(현우회 사무총장)
 - ▲이희수씨(전 수산청장)
 - ▲구자천씨(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권영명씨(대산농화산업주식회사 사장)
 - ▲송순화씨(주식회사엘콤통신 회장)
 - ▲박임호씨(주식회사연우기획 사장)
 - ▲김용호씨(주식회사세종비전 회장)
 - ▲이석규씨(한국대륙통상주식회사 회장)
 - ▲이인재씨(주식회사범신기획 회장)
 - ▲이중호씨(주식회사범신기획 상무)
 - ▲안의현씨(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 ▲최치민씨(주식회사달마 부사장)
 - ▲최홍윤씨(주식회사달마 전무이사)
 - ▲정태승씨(서울특별시도봉구청 부구청장)
 - ▲윤대현씨(D.M상사 사장)
 - ▲정대훈씨(금광기업주식회사 이사)
 - ▲김인배씨(H.S.T공업주식회사 회장)
 - ▲이치훈씨(성신수산 사장)
 - ▲민경효씨(펜타컴퓨터코리아주식회사 부사장)
 - ▲김순도씨(한국네드roid라인주식회사 사장)
 - ▲박당우씨(대일개발주식회사 부사장)
 - ▲이광조씨(극동전선공업주식회사 이사)
 - ▲김성규씨(SEAMAX 한국지사장)

- ▲이희수씨(전 수산청장)
- ▲구자천씨(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권영명씨(대산농화산업주식회사 사장)
- ▲송순화씨(주식회사엘콤통신 회장)
- ▲박임호씨(주식회사연우기획 사장)
- ▲김용호씨(주식회사세종비전 회장)
- ▲이석규씨(한국대륙통상주식회사 회장)
- ▲이인재씨(주식회사범신기획 회장)
- ▲이중호씨(주식회사범신기획 상무)
- ▲안의현씨(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 ▲최치민씨(주식회사달마 부사장)
- ▲최홍윤씨(주식회사달마 전무이사)
- ▲정태승씨(서울특별시도봉구청 부구청장)
- ▲윤대현씨(D.M상사 사장)
- ▲정대훈씨(금광기업주식회사 이사)
- ▲김인배씨(H.S.T공업주식회사 회장)
- ▲이치훈씨(성신수산 사장)
- ▲민경효씨(펜타컴퓨터코리아주식회사 부사장)
- ▲김순도씨(한국네드roid라인주식회사 사장)
- ▲박당우씨(대일개발주식회사 부사장)
- ▲이광조씨(극동전선공업주식회사 이사)
- ▲김성규씨(SEAMAX 한국지사장)

부음

▲문상진씨(본회 어항청소선 902호 기관장)는 5월 18일 부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전북 정읍시 용동면 칠성리 선영.

漁港청소선 바다環境淨化 괄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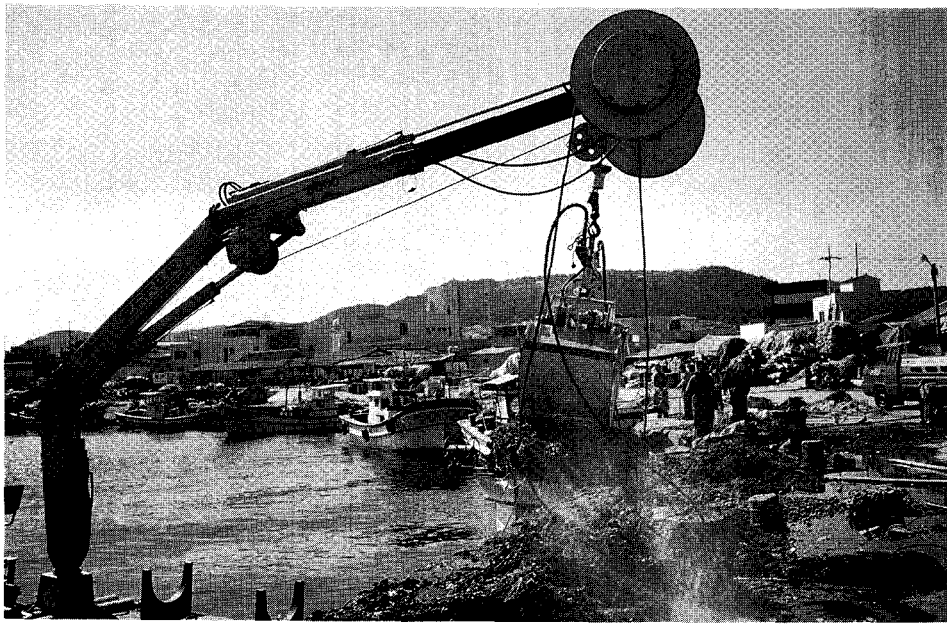
沈澱오폐물 90余톤 收去... 盛漁期 맞아 全海岸서 活躍

漁港協會 집계

한국어항협회는 효율적인 어항청소를 위한 세부 운영 계획에 따라 어항청소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동서 남해에서 48톤의 청소 실적을 올린 바 있는 어항청소선은 지난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선체 상가수리 및 정기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청소작업에 나서고 있다.

서해 어항청소선 902호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영광군 계마, 안마항에서 항내 부유물 및 오폐물 등을 수거했으며, 동해 어항청소선 907호는 4월 26일부터 출동, 5월 3일까지 경북 울진군 소재 오산항을 비롯해 사동 죽변항에서 청소작업을 실시해 4톤의 항행 장애물 및 침전 오폐물을 수거하고 이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경북 영덕군 관내 대진, 축산, 구계항에서 25톤의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남해 어항청소선 905호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남 고흥군의 녹동, 시산, 내발항에서 10톤의 어항청소 실적을 올렸다.

한국어항협회는 해상상태와 조수간만의 차이 등 청소선 운항에 따른 다소의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작업에 임하고 있으나 청소선 안전 운항에 철저히 대비, 승선원의 안전수칙을 강

화해 나가고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또 전국 연안 시도에 자체 어항청소 계획을 협회의 청소계획에 반영, 수정 보완하는 등 어항청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5월 23일 현재) 96년도 어항공사 계약추진 현황 (단위: 천원)

항명	도급액(계약)	계약일	착공일	시공회사
수산항	4,020,060	3.20	3.26	(주)삼양사
현포항	4,729,200	3.22	3.27	동화건설(주)
안목항	3,486,450	3.29	4.1	신우건설(주)
축산항	2,442,000	4.2	4.4	(주)삼건사
대변항	3,612,620	4.29	5.10	장남개발(주)
대진(경)항	621,500	4.30	5.2	(주)삼건사
양포항	156,361	4.30	5.4	대원종합건설(주)
구계항	75,673	4.30	5.6	대건종합건설(주)
오산항	611,200	5.11	5.13	태림종합건설(주)
구산항	941,800	5.11	5.13	학산건설(주)
음천항	633,100	5.11	5.13	삼영토건(주)
장호항	144,000	5.15	5.18	(주)삼원
방어진항	488,000	5.15	5.18	임광토건(주)
저동항	1,870,000	5.16	5.23	학산건설(주)
소흑산도항	5,630,000	3.6	3.7	삼부토건(주)
어청도항	4,462,020	3.22	3.23	조흥공업(주)
수몰항	2,570,000	3.28	3.29	대지종합건설(주)
모항항	2,585,196	3.28	4.3	덕산공업(주)
물도항	994,500	3.29	4.1	장수건설(주)
계마항	1,365,000	4.1	4.3	보성건설(주)
위도항	141,000	4.2	4.8	(유)영창건설
말도항	2,057,616	4.6	4.9	(유)동성
서망항	796,000	4.25	4.25	광남개발(주)
격포항	1,301,000	4.25	4.29	(합)대한토건사
홍원항	1,700,500	5.1	5.13	동방건설(주)
위도항(준설)	264,000	5.3	5.13	한진종합건설(주)
초도항	2,404,000	3.12	3.14	영진건설(주)
득암항	1,720,000	3.21	3.25	금광기업(주)
도두항	2,461,910	3.23	3.25	(주)우주종합건설
풍남항	1,746,000	3.26	3.29	건화건설(주)
김녕항	1,953,285	3.28	4.1	정한종합건설(주)
녹동항	1,347,800	3.28	4.1	금광기업(주)
광암항	1,637,000	3.29	4.1	장남개발(주)
삼덕항	1,697,000	4.1	4.2	우림종합건설(주)
신양항	882,000	4.3	4.4	삼우종합건설(주)
여서항	4,422,000	4.3	4.10	금광기업(주)
미조항	1,120,000	4.8	4.9	영생건설(주)
낭도항	1,542,000	4.10	4.12	대아건설(주)
보옥항	1,254,550	4.10	4.15	남광건설(주)
매물도항	1,887,000	4.15	4.15	백해종합건설(주)
지세포항	2,600,800	4.15	4.17	성보건설산업(주)
사산항	3,921,500	4.16	4.19	금광기업(주)
신수항	940,440	4.22	4.23	영생건설(주)
사동항	1,330,000	4.23	4.27	금광기업(주)
물건항	3,983,000	4.24	4.26	영생건설(주)
내발항	1,980,660	5.1	5.4	동광건설(주)
옥지항	2,742,000	5.7	5.17	영생건설(주)
대대포항	1,535,000	5.9	5.13	대창건설(주)
위미항	3,218,600	5.10	5.13	(주)우주종합건설
백전포항	339,914	5.22	5.23	대양종합건설(주)

제8차 해외선진어항시찰단 登程

尖端어항建設 · 효율管理 등 寄與 기대

6월 3일 일 · 뉴질랜드 · 호주 등 3개국 向發

한국어항협회는 오는 6월 3일(월)부터 12일(수)까지 9박 10일 동안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제8차 해외선진어항어촌시찰을 실시한다.

이번 시찰에는 수산청과 각 시도, 시군의 어항 관계자를 비롯하여 일선 수협과 시공업체, 용역업체 등에서 4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제8차 시찰단은 우리

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新奈川현의 沼浦어항, 靜浦어항, 内浦어항, 西浦어항, 小田原어항, 三崎어항과 千葉현의 富津어항을 시찰하고, 환경정화에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항과 이스트피시항을, 그리고 세계3대 미항으로 이름난 시드니항의 첨단시설 등을 시찰국 어항관련 기관의 공식안내를

받아 체계적으로 둘러볼 예정이다.

해외선진어항어촌시찰은 선진국의 어항시책과 어항건설 현황, 관리상태를 현지에서 직접 두루 살펴 봄으로써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 건설의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목적으로 협회 주관하에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책임감리제 품질 · 안전부문 큰 성과 공정 · 시공관리분야는 역효과 지적

공공시설공사에 책임감리제가 도입된 이래 감리전문업체 수와 일감은 크게 늘고 있으나 공정 및 시공관리면에서의 시행효과는 오히려 저해 요소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지난 94년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입 시행중인 책임감리제도와 관련,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우편설문조사한 결과 감리전문회사의 수는 지난달말 기준 3백1개사로 시행 첫해보다 30.2%, 감리

원 수는 95년말 현재 9천7백5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6.2%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무감리대상 확대 등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수주규모는 지난해 3천7백53억 원을 기록, 지난 94년의 1천9백60억원보다 무려 91.5%나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행효과에 대해서는 품질과 안전관리 부문에서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와 발주기관의 반응은 공정관리와 시공관리면에서 오히려 저해요소가 많다고

응답해 종합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즉 품질관리면에서는 응답자의 71%가, 안전관리면에서는 60.0%가 향상됐다고 대답해 부실공사 방지라는 당초의 제도도입 목적만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관리측면에서는 51.6%가, 그리고 시공관리면에서는 43.5%가 책임감리제의 시행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인 대답은 공정부문이 24.2%, 시공부문이 33.9%에 그쳐 이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 어항어촌 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主要業務

- 港灣의 開發조사, 整備, 計劃, 設計
- 一般港, 工業港, 漁港
- 防波堤, 防潮堤, 浚渫工事
- 各種 港灣施設, 海洋構造物
- 港灣施設의 安全診斷
- 各種土木工事的 計劃, 設計
- 調査測量(陸上 및 水深)
- 上·下水道
- 地域 및 都市計劃(工團造成)
- 道路 및 空港
- 各種 運動施設
- 工事施工監理
- 環境影響評價代行

株式會社 唯一綜合技術團

會長 李炳周
技術士(上·下水道)

代表理事 李義允
技術士(港灣 및 海岸)

서울特別市 麻浦區 東橋同 174-13
TEL.(02)336-1854, 324-8954, 338-5971
(051)441-1811~2
FAX 338-7586

業種

- 專門技術用役業
- 技術部門: 建設部門
- 專門分野: 港灣 및 海岸, 上·下水道
- 地域 및 都市計劃, 道路 및 港灣
- 一般測量業
- 工事施工監理專門會社
- 海外建設業(建設用役)
- 環境影響評價代行業指定
- 廣域境界測量代行業



뱀·곤충등에 물렸을때(1)

지혈대와 절개, 흡인은
교상후 1시간내 시행

전세계에는 약 2천5백 종의 뱀이 서식하며 이중 10%가 독사로 알려져 있다. 그중 우리나라에는 14종이 서식하며 이 중에서 3종만이 독사인데 살모사, 까치살모사 및 불독사이다.

주로 농어촌에서 살모사에 의한 교상의 빈도가 가장 높는데 그 이유는 산기슭이나 밭두렁에 살모사가 많이 서식하기 때문이다. 이 살모사의 출현시기는 4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로 하절기에 교상이 많다.

독사교상의 국소치료는 교상시부터 치료개시까지의 시간이 중요하다. 지혈대와 절개 및 흡인은 교상후 1시간내에 시행하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다.

먼저 뱀에 물렸을 때는 물린 사지를 고정시키고 사지에 부목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섬유 운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독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독사의 이러한 사독은 입과관을 통해 흡수된다. 사독은 혈류를 통해 흡수되지 않으므로 정맥과 입과관만 막을 정도로 느슨하게 정착하고 손가락 하나만 들어갈 정도로 구혈대를 맨다. 이때 장시간 강하게 매어두면 조직의 괴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약 30분동안 구혈대를 그대로 두고 국소흡인을 시행한다. 독사교상 후 국소절개와 흡인은 가급적 조속히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국소흡인을 3분내에 시행하면 파하조직에 주입된 사독의 약 40% 정도가 제거된다. 따라서 교상후 5분내의 치료가 중요하며 15분이 경과시 효과가 반감되면 30분경과 후에 흡인 효과는 거의 없다.

절개는 길이 1cm, 깊이는 약 5mm정도로 일자로 하며 십자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 만약 절개 후 흡인기구가 없으면 입으로 빨아내기도 하나 구강점막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독은 건강한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지 않으나 만약 점막에 작은 열상이 있을시에는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독을 삼켰을 시 소화액은 이것을 충분히 중화시킬 수 있으므로 흡인시 사독이 목에 넘어갔다고 해서 그리 겁을 내지는 않아도 된다.

또한 농어촌에서는 벌에 자상후 급성신부전이 초래되어 보고된 예도 있고 간혹 산간지방에서 희귀곤충에 의한 쇼크사를 보고하기도 한다. 이러한 곤충등 꿀벌, 말벌, 장수말벌, 황색 및 흑색말벌, 불개미 등이 벌과에 속하고 이것들은 독사교상 이상으로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 이러한 벌독에는 특이한 단백질이 있어 이것이 신체에 주입되면 환자는 갑작스러 다음에 물렸을 시 과민성 반응을 일으켜 국소동통, 종창, 홍반, 전신의 심한 열감, 두통, 시력장애, 소양감, 담마진 두드러기 피부 및 점막출혈, 쇠약감, 호흡곤란, 천식 및 과민성쇼크를 유발한다. 곤충에 의한 자상으로 사망할 경우 대부분 15에서 30분내에 일어난다.

치료로는 자상후 구혈대를 정착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독낭을 제거해야 하는데, 독낭은 짜지않는 것이 좋다. 곤충자상 후 심한국소 및 전신증상을 나타냈던 환자는 탈감작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대리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정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 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 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예결정」을 한다.

라.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조정 담당판사나 조정장이 이끄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먼저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고, 다음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한다.

조정 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고루 듣고 당사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사실과 증거를 조사

민사조정제도(下)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하여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권고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5.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가. 조정의 성립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 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더라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 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

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강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정본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된다. 당사자 쌍방이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라. 조정의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예결정」을 하기도 적절치 못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조정 담당판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6.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위 5의 다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위 5의 라의 경우) 또는 「조정예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어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된다.

그러나 이처럼 조정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즉,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소멸

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고, 한편 소송으로 이행됨에 따라 추가로 인지를 붙여야 하지만 이때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붙였어야 할 금액에서 조정신청을 할 때 이미 납부한 수수료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붙이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이다.

7. 조정의 효력과 집행

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정 또는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관력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 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위 조정 또는 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의 내용이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거나 일정한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출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79]

피셔리의 계획

(2) 지역활성화형

지역에 있어서 산업정체, 고령화, 연소층 유실등을 막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폭제로서, 피셔리의 정비를 도모한다. 이 경우, 요구되는 것은 기본적인 시설이외에 수산물직판시설, 해산물레스토랑, 숙박시설, 유료 낚시터, 테니스코트 등의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등이다. 이와같은 정비방식은 공공주도 민간주도, 관민합동의 3가지 경우를 생각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대도시에 가깝고 당일치기를 중심으로한 이른바 도시근교형과 장기체재를 노린 리조트형으로 다시 분류된다. 전자는, 당일치기의 이용자가 대부분이고, 주변의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배치상황에도 의존하나, 목적이 비교적 단일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후자

는, 체재형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자에 요구되는 기능도 상이하게 된다.

표에 형태상의 분류를 제시한다.

규모의 설정

(1) 수요예측

피셔리의 계획수용척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셔리의 공용목표연도에 있어서 유어선등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시계열데이터를 근거한 회귀분석, 전국 저보트수의 장래 예측치등을 참고로 측정하게 된다. 예측에 있어서는, 어항등에 있어서 유어선등의 보관상황이나 현유척수등의 보유상황을 파악한뒤, 주변 인구등의 사회적 조건·계획지등의 특성

을 근거로 분석함으로써, 장래수요예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계획수용척수의 설정

피셔리의 계획수용연도에 있어서의 수요예측결과를 근거로 하고, 계획구역의 유어선등의 활동 상황이나, 피셔리가 지녀야할 성격, 활동수역의 규모·계획지점의 개발규모, 당해 어항의 정비계획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피셔리의 계획수용척수가 설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수용척수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유어선의 종류마다 행한다.

또, 장래 각지의 피셔리 등을 이용한 크루징의 요청이 높아질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은, 가급적 비저터 버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형태상의 분류

분류지표		형 태	특 징
이용선박의 종류	유어선 중심	어항이용조정 지역활성화	유어를 위한 어항의 확보, 어업과의 조화가 전체, 선형은 소형이고 소유자의 부담 능력이 낮다. 어항이용조정-경비, 관리, 운영은 지방공공단체로 수익성은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는다. 지역활성화-경비, 관리, 운영은 지방공공단체주체이고, 민간 주도 참가수반의 활동영역의 확보, 어업과의 조화가 전체, 소유자는 고액소득자이고, 원리지에 거주, 어항이용조정-경비등은, 지방공공단체주체로, 민간도 참가, 수익성이 있다. 지역활성화-경비등은, 지방공공단체외에 배우의 경비도 포함해서 민간 주도 참가.
	요트, 모터보트 중심	어항이용조정 지역활성화	선종에 따라 필요시설이 다르고, 제공하는 용역도 다르다.
이용선박의 크기		대형선(본격적대형요트)	
		중형선(디크루저급)	
		소형선(6~15피트정도)	
기능		단일기능적 레크리에이션 형태	피셔리 이외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기능과의 결부 유무에 따라 시설의 운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복합기능적 레크리에이션 형태	
		주말형 체재형	
이용형태		공용	
		민간(개인, 기업등)	운영은 주체자에 의한 차이가 가장 크게 영향
시설소유자		제3섹터	
		퍼블릭제(멤버제)	
		렌탈제	운영방안을 조정하는 기본의 하나
		복합형(상기의 조합)	
규모		대규모	평균 보관 척수는 50척이하로 소규모이나, 경영주체에 있어서나 이용자에 있어서나, 전체적으로는 규모의 장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필요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다.
		중규모	
		소규모	
업태		전업	경영을 전업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업과 결합하여 전체사업의 일부로서 하거나
		겸업	사업의 주체적인 시설인가, 부대시설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가.

생 활 정 보

생 활 정 보